

‘해외 송금 빠르고 싸게’ 은행, 스테이블코인 속도

신한은행 등 3곳 ‘팩스’ 1단계 검증
외국인 송금수수료·시간 절감 기대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도입 준비에 분주하다. 해외 송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송금 절차와 높은 수수료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빠를수록 신규 고객 유치와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유리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팩스프로젝트(Project Pax)’의 1단계 검증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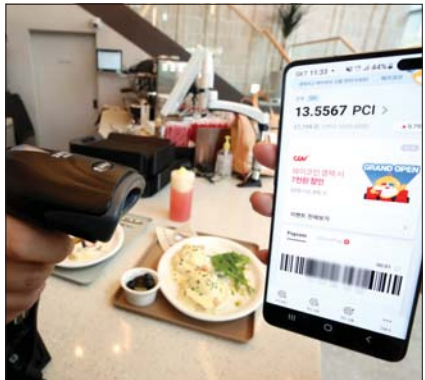
프로젝트 팩스는 스테이블코인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경우 국가간 법적·기술적 개선 과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젝트다.

팩스 프로젝트의 1단계 검증과정은 한국에서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한 뒤, 일본에서 이를 엔화로 환전해 받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은행망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국경 간 자금 이동 구간에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기존 시스템에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단계는 결제로 범위를 확대해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실 거래 범위를 확대한다. 해외송금이나 무역 결제 시 한쪽만 지급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위험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검증시점과 상용화 시점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처럼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서울 한 카페점에서 직원이 암호화폐인 ‘페코인(PCI)’을 이용한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해외송금과 관련한 고객의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국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 소요시간은 최대 5영업일, 1~2%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시간은 1영업일로 줄어 들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국내 은행이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하면 기업은 이를 외국 원화로 환전해 받을 수 있다.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망을 거치지 않아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방형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까지 참여해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이를 위한 신규 고객유치와 시장 확장도 가능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

저축은행이 줄인 여신, 인뱅이 늘린다

저축銀 개인사업자 대출 4조 감소
카뱅, 담보 대출 중심 1년새 2배 ↑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여신을 확대하며 외형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4조9458억원으로 전년 동기(18조4806) 대비 4조원 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 말과 비교하면 약 8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2022년 24조원대에서 2023년 19조원대로 감소한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15조원대로 급감했고, 올해 들어서는 14조원대까지 내려온 것이다.

주요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애큐온)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SBI저축은행이다. SBI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대비 올 3월 약 5561억원 감소했다. 이어 애큐온저축은행이 약 5417억원, 오케이저축은행이 약 3360억원 가량 감소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담보대출을 확대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올해 2분기 여신잔액은 개인사업자대출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 지난해 2분기 약 1조4000억원에서, 올 2분기 약 2조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비중 역시 증가세다. 지난해 2분기 40%대였던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비중은 올해 2분기 62%까지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을 뜻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여신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주담대를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2700억원 증가했다.

美 금리 인하에 국제 금값 꺾였다

사상 최고가 찍고 차익실현 영향
국내 ‘김치 프리미엄’ 지속 우려
전문가 “당분간 강세 지속 예상”

이달 들어서만 온스당 200달러 넘게 오르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금(金) 가격의 상승세가 꺾였다. 미 연준이 시장 예측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차익 실현에 금 가격이 하락했다. 빠르게 상승했던 국내 금 가격도 주춤했지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이 지속되면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거래에서 12월 인도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718.80달러에 장을 마쳤다.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직전일보다 7.30달러(0.2%) 내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풀려난 영향이다.

미 연준은 16~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하고 0.25%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가운데, 단변에 0.50%p의 금리를 인하하는 ‘빅컷’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렸다. 빅컷이 단행되면 추가 금리 인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 크며, 통상적으로 금 가격은 금리 인하기에 상승한다.

제품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위험 관리적 인하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위험이 매우 달라졌고, 실제로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회의에서 빅컷에 대한 광범위



종로구 한국 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시스

한 지지는 없었다. 그런 조치는 정책이 명백히 잘못된 방향에 있을 때 필요하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지난 17일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금리 전망표)에 따르면 19명의 연준 의원 가운데 10명은 올해 말까지 0.50%p 이상의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고, 2명은 0.25%p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6명은 현 수준에서의 금리 동결을, 1명은 0.25%p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국내 금 가격의 상승세도 꺾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국내 금 현물 가격은 g당 16만90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기록한 사상최고기인 17만1400원에서 2380원(1.39%) 내렸다. 다만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에 비해 2%가량 높게 형성되면서 ‘김치프리미엄(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에 관한 우려도 나왔다.

금은 일물일가(一物一價, 동일한 상품에 같은 가격이 적용되는 것)가 성립

하는 상품이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더라도, 수요가 잦아들면 거래 물량이 많은 해외 가격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에도 트럼프의 ‘상호관세’ 예고로 20%의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됐지만, 투자 수요가 잦아들면서 국제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급락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값과 국제 금 시세차가 크게 벌어졌던 2월보다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금 수요가 잦아들면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를 맞춰갈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 시에는 유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금값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회사데이터트랙(DataTrek)은 “계속된 가격 상승에도 지금의 투자 환경은 여전히 금 가격에 추가 상승 여력을 남겨뒀다”면서 “금은 지난 1년동안 43% 가량 상승했지만, 지난 1975년 이후 금이 급등할 때의 일반적인 상승률은 연간 57%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간편결제 비중 72%

간편지급 서비스 51.4% 차지
카드사 비중 줄고 ICT업체 약진

비밀번호나 지문 등 간편인증만으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한 간편지급 서비스 비중이 51.4%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간편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72.3%로 전년보다 더 확대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 상반기 중 국내 지급카드 결제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하루 평균 3조5000억원으로 1년전(3조4000억원)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후불형)는 2조8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개인카드 이용규모는 2조2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법인카드는 586억원으로 5.2% 증가했다.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형카드는 698억원으로 같은기간 2.1% 늘었다. 선불카드는 일부 카드사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자가 카드사에서 전자금융업자로 변경되며 14.7% 줄었다.

지급형태별로 보면 꾸준히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다.

상반기 비대면과 대면 지급이용 규모는 각각 1조3000억원, 1조7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8%, 1.0% 증가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도 증가했다.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반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0.8% 감소했다.

모바일 기기에서 비밀번호와 지문 등을 활용해 결제하는 간편지급서비스 비중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 중 간편지급 결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1.4%로 1년전과 비교해 확대됐다.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와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간편지급서비스 비중은 72.3%로 확대된 반면 카드사 비중은 27.7%로 축소됐다.

/나우리 기자

서울 집값 33주 연속↑…매수심리도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매수급지수도 올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하며 3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성동구(0.27%→0.41%)는 금호·성수동, 용산구(0.14%→0.12%)는 이촌·한남동, 마포구(0.17%→0.28%)는 공덕·성산동 주요 단지, 광진구(0.20%→0.25%)는 자양·구의동 학군지, 중구(0.16%→0.18%)는 신당·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전지원 기자 jjw13@

강남권의 경우 양천구(0.10%→0.19%)는 목·신정동 역세권, 송파구(0.14%→0.19%)는 잠실·가락동, 서초구(0.14%→0.17%)는 서초·반포동 주요 단지, 영등포구(0.11%→0.15%)는 신길·여의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8을 기록해 전주(100.2)보다 소폭 올랐다.